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동사 사용과 의미적 근사치* **

—Break-type과 Remove-type 동사를 중심으로—

황 순 희

Abstract

Hwang, Soonhee. 2017. 9. 30. **Semantic approximation related to verbal lexicon in Korean monolinguals: Focused on Break-type and Remove-type verbs.** *Bilingual Research* 68, 267-304.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semantic approximation related to verbal lexicon in Korean 48-month-old monolingual children (n= 40) as well as adults (= 17). Despite the fact that semantic approximation is a pivotal aspect of language development, related previous studies in 1st language acquisition are much more scarce than regarding 2nd language learning. Semantic approximation in child language stems from analogic and pragmatic strategies and helps young speakers communicate their thoughts by making up their immature lexicon. Moreover, to dat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spects and factors motivating semantic approximations in Korean monolinguals and their strategies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2016년 11월 12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본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으며, 일부 데이터는 프랑스, 툴루즈(Toulouse) II 대학 최진남 박사가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 준 여러 아동과 부모님들, 부산시 소재 P 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H 어린이집, 그리고 최진남 박사에게 감사한다.

** 이 논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시고 귀한 지적을 주신 세 분,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진한 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아울러 지면 관계상 심화연구가 필요한 연구 문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underlying their production. Interestingly, Korean speaking monolinguals tend to use semantic approximation much more than those of other languages, i.e. French, German, Chinese and English. For examining this aspect, in this study, the semantic approximation related to verbal lexicon was studied in 40 monolingual kids, compared with 17 matched control participants during an action naming task, APPROX. Our findings show that first, each group showed higher rate of use semantic approximation than other language speakers. Second, most of semantic approximations in Korean monolinguals have been based on 'domain change' (between-domain) and more generic terms (hypernyms) are used. Third, semantic approximations are found to be related to lexical richness in Korean verbs' construction and influence the level of conceptual complexity in Korean monolinguals. (Hongik University)

【Key words】 의미적 근사치(semantic approximation), 동사 어휘집(verbal lexicon), 한국어 단어 사용자 (Korean monolinguals),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Break-type(Break-type), Remove-type(Remove-type)

1. 서론

인지언어학, 인지의미론 관점에서 어휘 습득 및 의미 구조화와 관련된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은 세계를 범주화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Clark 1993; Chen, 2006). 특별히 인지적 유연성은 아동의 어휘 습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유아, 아동 또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어휘화와 개념화가 미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주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과대확장(overextension), 은유(metaphor)를 비롯하여(Waxman and Gelman 1986; Broderic 1991; Lagarano 1997; Bialecka-Pikul 2003), 목표동작(target action)에 근접한 의미적 근사치(semantic approximation)를 자주 동원한다(Duvignau 2003; Duvignau and Garcia-Debanco 2008; Duvignau, Gaume, and Nespoulous 2004 a; Duvignau, Joëlle, and Gaume 2004 b; Pérez-Hernández and Duvignau, 2016). 이러한 어휘적, 인지적 유연성은 개별 화자의 개념화 전략(conceptual strategies)을 반영할 뿐 아니라, 개별어

의 특성, 어휘 습득 시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요인 등을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 - 유아, 아동, 성인 - 는 동사 사용 시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모국어 화자에 비해 의미적 근사치(이하, approx¹⁾)를 더욱 많이 동원한다(황순희 · 최진남 2014; 2015; Chen 2006)는 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자가 수행한 선행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첫째, 한국어 모국어 아동과 성인이 다른 개별어 모국어 화자보다 의미적 유연성 중 approx를 많이 사용하는 양상과 이유를 Break-type 동사(예. {터트리다, 깨다, 부수다...})와 Remove-type 동사(예. {빼다, 벗기다, 깎다...})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해보고, 둘째, 도출하게 될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국어 동사 어휘와 관련된 approx 사용에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모국어 화자인 아동(40명, 평균 48.90개월)과 성인(17명, 평균 27.82세)을 대상으로 동작 명명하기 과제(action naming task)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실험 연구(pilot study) 성격을 지니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어 동사 사용 시 approx 사용과 다른 개별어 사용자와의 비교 분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사 산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pprox》를 이용하였다. 《Approx》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취할 수 있는 17가지의 분리성 동작 - [분리], [절단]²⁾ 등을 비롯한 - 관련 분리성 동사(separation verbs)를 내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으로, 프랑스 툴루즈 2대학(Université de Toulouse II)이 개발(Duvignau, Fossard, Gaume, Pimenta, and Elie 2007) 하였다. 한편 분리성 동사는 대부분의 자연언어에 출현하는 보편화된 의미 영역을

1) 이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아동, 성인이 동원하는 의미적 근사치 전략은 approx로, 동사 산출 능력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인 ‘Approx’는 《Approx》로 표기한다.

2) 이 연구에서 [분리], [절단] 등의 표기는 ‘분리’, ‘절단’등의 구체적 동작, 행위와 관련된 개별 동사의 의미를 포괄하는 상위언어(meta-language)를 사용한다.

표상하며, 보편화된 동작 범주에 속한다³⁾).

언어(모국어, L=1) 습득기의 아동은 특정 목표동작을 기술할 때, 적절한 동사 어휘, 이른바 ‘정답’을 모를 경우 몇 가지 인지적 전략을 동원한다. 첫째, approx를 동원한다. 즉 정확한 동사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근접하다고 판단한 어휘를 동원하는 것이다. 둘째, 만일 ‘근접한’ 어휘마저 자신의 어휘집(lexicon)에 없다면, 아동은 문제가 된 동작, 동사와 인접한 의미장(semantic field), 영역(domain)에 속한 동사 중에서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총칭적인(generic) 동사 또는 구체적인(specific) 동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가령 아동은 <당근 껍질을_벗기>는 상황을 보고 {벗기다}를 생각해낼 수 없다면 {벗기다}와 최대한 의미적으로 근접하다고 판단하는 어휘인 {까다, 깎다, 자르다, 썰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서 {까다, 깎다, 자르다, 썰다...}는 {벗기다}의 의미적 근사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벗기다...}는 Remove-type⁴⁾에, {자르다, 썰다...}는 Cut-type⁵⁾에 해당하므로 위의 경우 의미 영역(의미장)의 변경(domain change)이 일어났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국어 모국어 유아는 다른 언어권(예. 영어)의 같은 또래에 비해 동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가 높고 반응력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여, 동사 사용 시 민감하게 반응한다(Choi and Bowerman 1991; Choi and Gopnik 1995; Choi 2006)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언어 습득 시 아동의 명사 선호성 가설을 제기하여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Gentner(1982)와 정면으로 상반된 입장이다. 특별히 한국 어머니는 미국 어머니보다 어린 유아에게 동사 입력(input)을 훨씬 많이 하며, 18개월 무렵의 유아가 다른 언어권 또래에 비해 동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정 행위에 대해 정확한 동사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인

3) *Cognitive Linguistics*(2007), 18(2)(Berlin: Walter De Gruyter)는 여러 자연언어에 표상되는 ‘분리성 동사’의 양상을 다룬 특집호이다.

4) 분리성 동사의 의미 범주와 관련된 논의는 황순희·Duvignau(2013)를 참조하라.

5) {자르다}는 Cut-type을 대표하는 총칭적 어휘이다.

다(Choi 2006). 그러나 이처럼 한국어 아동들은 동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산출할 줄 아는 유아기를 거쳤음에도, 성장하면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등을 사용하는 같은 또래들보다 approx를 훨씬 많이 동원하게 된다(황순희·최진남 2014; 2015; Chen 2006; Duvignau and Rohr 2014; Smith 2013).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연구 절차를 구안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⁶⁾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중 approx가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동작 4가지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Break-type에 속하는 <풍선을_터트린다>, <토타트를_터트린다>와 Remove-type에 속하는 <레고블_빼다>, <당근을_벗기다(깎다)>가 추출되었다. 둘째, 위의 4가지 동작만을 대상으로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40명, 남 : 여 = 23 : 17, M: 48.90개월, SD: 4.53, 범위: 35~58개월), 성인(17명, 남 : 여 = 17 : 7, M: 27.82세, SD: 6.41, 범위: 20~40세)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리성 동사와 의미 범주, 그리고 아동의 인지적 전략인 approx와 총칭적 어휘 사용을 논의한 선행 연구를 간략히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방법을 연구 문제, 연구 대상, 검사 도구 및 실험 절차, 자료 분석 기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4장에서는 《Approx》를 이용하여 한국어 모국어 아동군과 성인군을 대상으로 수행한 동사산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간략히 언급한다.

6) 수집한 데이터는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30명, 남 : 여 = 18 : 12, M: 46.60개월, SD: 3.66, 범위: 40~52개월)과 한국어-프랑스어 이중언어 아동(21명, 남 : 여 = 12 : 9, M: 61.86개월, SD: 7.87, 범위: 48~84개월)을 대상으로 동작 명명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이다.

2.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2장에서는 언어 습득기 아동이 동원하는 인지적 전략인 *approx*와 총칭적 어휘 사용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간략히 고찰한다. 먼저 《*Approx*》의 대상인 분리성 동사와 의미 범주를 간단히 살펴본다.

2.1. 분리성 동사와 의미 범주

분리성 동사는 대부분의 자연언어에 출현하는 보편화된 의미 영역을 표상한다(Majid, Staden, Boster, and Bowerman 2004: 885; Majid, Bowerman, and Boster 2007: 134). 특별히 *Cognitive Linguistics*(2007), 18(2)는 대부분의 자연언어에서 ‘분리성 동작’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룬 특별호이다. 분리성 동사는 전문화된 특수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의미 영역으로, 인간이 분리와 절단을 목적으로 도구를 제작하고 이것을 사용한 기록은 2백 5십 만년 전 동부 아프리카 유적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르고 깨는 동작을 위해 보다 정교한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르고 깨고 부수고 벗기는 등의 분리성 동작, 분리성 행위와 관련된 동사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어휘로 간주되며 그 의미 범주 역시 대단히 ‘언어 보편적’이다. 이것은 분리성 동작의 의미 범주가 언어외적 인지 작용(cognition)에 근거하기 때문이다(황순희 · Duvignau 2013).

분리성 동사의 의미 범주는 특별히 영어의 *Break-type*과 *Cut-type*으로 나뉘어 논의된 바 있다(Levin 1993; Erkelens 2003; 종종 B & C로 표기함). *Break-type*에는 {*break, chip, crack, crash, crush, fracture, rip, shatter, smash, snap, splinter, split, tear...*} 등이 속하며, 이들 동사는 주로 [분리] 동작으로 발생한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 반면 *Cut-type*에는 {*chip,*

clip, cut, hack, hew, saw, scarpe, scratch, slash, snip...} 등이 속하며, 상태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특히 이들 동사는 [분리] 동작과 관련된 도구, 방법과 관련된 명시적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동사는 동원된 도구, 방법 등에 따라 의미가 서로 구별된다⁷⁾. 그런데 대조 언어학 관점에서 분리성 동사의 의미 범주 구분은 모든 언어가 Break-type, Cut-type 등의 이분법을 따르지는 않으며(Bohenmeyer 2007), 따라서 본 연구도 《Approx》의 Break-type, Remove-type, Cut-type 분류를 따른다.

2.2. Approx(의미적 근사치) 발화

먼저 유아 및 아동의 동사 습득 순서와 특징을 다룬 대표적 연구로 Gentner(1982), Choi and Bowerman(1991), Choi and Gopnik(1995), Choi(2006) 등을 들 수 있다. Gentner(1982)는 아동은 명사를 동사 및 다른 품사의 어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습득하며 이러한 현상은 영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다는 ‘명사 선호성’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 이론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도 한국어 아동은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빨리, 더 많이 습득하고, 행동적 언어보다 대상물에 대한 언어를 더 빨리 배운다는 명사 선호성 가설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Choi and Bowerman(1991), Choi and Gopnik(1995), Choi(2006)는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국어 유아 및 아동은 영어권 아동에 비해 동사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반응력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므로, 명사 선호성 가설은 한국어 및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어 어머니가 미국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동사 입력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이

7) 이밖에도 Break-type, Cut-type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역문, 기동상의 교체 등이 제시될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Levin(1993)을 참조하라.

라는 것이다. 특히 Choi(2006)는 한국어 유아는 18개월 무렵부터 이미 동사에 대한 인지적 각인이 시작되어, 유아들은 동사 사용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인 18개월 무렵의 유아들은 한국어의 tight-fit 동사(예. 넣다), loose-fit 동사(예. 끼다)에 적절히 반응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는 한국어 사용 유아가 영어권의 같은 또래들보다 동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정 행위에 대한 동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어휘 습득기의 유아 및 아동은 두드러진 두 가지 인지 전략을 동원하는데, approx와 총칭적 어휘가 그것이다.

첫째, approx는 규범적 발화(conventional)와 대조를 이루는 비규범적(non-conventional) 발화를 뜻한다. 주로 ① 은유(metaphor)(Ricoeur 1975; Pearson 1990; Broderic 1991; Lagarano 1997; Bialecka-Pikul 2003), ② 과대 확장(overextension)(Gelman, Croft, Fu, Clausner, and Gottfried 1998; Clark 2009), ③ 의미적 근사치(Duvignau 2003; Duvignau and Garcia-Debanc 2008; Duvignau, Gaume, and Nespoulous 2004 a; Duvignau, Joëlle, and Gaume 2004 b)로 분류(Winner 1978: 469) 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approx는 문자 그대로 의미적으로 근접한 어휘 또는 발화를 의미한다. ‘Approx(근사치)’는 Jakobson(1956; 1963)이 ‘approximate iden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통해 처음 사용한데서 유래한다. R. Jakobson은 아동이나 실어증 환자들의 발화가 종종 “유사하거나 근접한 것들로 은유적 속성을 지닌 것”⁸⁾임을 알게 되었다. Approx는 언어 습득 상황에서 자주 동원된다(Duvignau, Gaume, and Nespoulous 2004 a; Duvignau, Joëlle, and Gaume 2004 b). 이처럼 approx는 어휘 습득기 아동의 인지적 유연성을 반영하며, 어휘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제로 아

8) “Le malade – ou l’enfant ... utilise les similitudes, et ses identifications approchées sont de nature métaphoriques...” (Jakobson 1956: 58).

동의 어휘 부족과 결여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approx는 어휘 간의 공통 하위관계(co-hyponymy)를 반영하여 구조화되는 경향(Duvignau 2003)이 있으므로 비규범적 발화에 나타난 동사들은 실제로 규범적 발화에서 출현 가능한 동사들과 공통의 상·하위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Approx는 제 1언어 습득 시 아동뿐만 아니라 제 2언어 학습 시 학습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제 1언어 습득 아동의 의미적 근사치 관련 연구는 제 2언어 학습자들의 의미적 근사치 연구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상황이다(Zimmerman 1986; 1987; Singleton 1999; Agustin 2005). 더욱이 의미적 근사치를 발생시키는 여러 변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몇 연구들(Duvignau 2002; 2003; Duvignau, Fossard, Gaume, Pimenta, and Elie 2007)은 아동의 의미적 근사치가 유추(analogy)와 화용적 전략들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4세 전후까지 지속되는 아동의 ‘은유’는 미성숙 단계의 어휘집에 존재하는 틈(gap)을 메꾸기 위해, 이미 습득한 어휘들의 의미를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인지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성인의 은유와 구별되는 인지적 전략이다.

셋째, 과대확장은 유추에 의한 ‘추론’에 기초한다. 가령 유아, 아동이 {고양이, 말, 소, 양...} 등을 보고 무조건 ‘개’라고 지칭할 경우이다. 유아, 아동은 정확한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네 발 달린 포유류’를 지칭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한 ‘개’를 선택한 것이다. 특히 아동들이 출발 어휘(source-words)를 모른다면 과대확장을 더 많이 한다(Gelman, Croft, Fu, Clausner, and Gottfried 1998). 과대확장 역시 어휘의 결여와 부족을 메꾸기 위해 동원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위의 ‘개’의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 대상 Obj. 1을 묘사하기 위해 Obj. 1과 동일한 의미장에 속하는 또 다른 대상인 Obj. 2와 연관성을 부여하게 될 때, 범주적 과대확장(categorical overextension)이 된다. 따라서 ‘말(horse)’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개(dog)’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이한 의미장에 속하는 두 어휘를 연관지어 발화하는 과대확장도 있는데, 유추적 과대확장(analogical overextension)이다. ‘석류(pomegranate)’가 생각나지 않아 ‘달(moon)’이라고 말하는 경우이다(Gelman, Croft, Fu, Clausner, and Gottfried 1998). 이처럼 아동이 두 가지 대상 또는 동작을 서로 연관지을 수 있는 능력은 유추적 추론을 통해서 가능하다. 과대확장은 구별되는 두 가지 대상이나 동작에 존재하는 유사한 특성 또는 자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아동의 인지적 유연성을 대변한다.

이러한 과대확장은 명사뿐 아니라 동사 사용 시에도 나타난다. 아동은 특정 동사의 구체적인 자질, 특성을 배우기 이전에 동사의 일반적, 총칭적 자질을 먼저 습득하기 때문에 총칭적 동사를 비규범적, approx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아동이 서로 관련이 있는 동사들의 의미 속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질, 특성을 아직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Gentner 1975). Gentner(1975)에 의하면 아동은 ‘전달과 소유 (transmission & possession)’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동들은 {give, buy, sell, pay, trade...} 등을 사용할 때 이들 동사 간의 의미적 경계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해서 정확한 용법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Bowerman(1978; 2005), Clark(1993)도 영어 습득기 아동들이 두 가지 사물의 ‘분리하다’와 ‘(기계장치 등을)켜다, 가동시키다’를 의미하기 위해 ‘open’을 approx 방식으로 자주 동원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들은 특정한 동사, 동작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자질’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데, 위의 {분리하다, 가동시키다}의 예에서는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 자질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Bowerman 2005).

한편 한국어 동사 습득기 아동의 approx 양상을 다룬 국내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3. 총칭적 어휘

언어 습득기 아동의 두 번째 인지 전략은 ‘총칭적 어휘, 총칭적 동사’의 사용이다. 아동은 총칭적, 일반적 동사, 상위어(hyponym)를 구체적 동사, 하위어(hyponym)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Bernicot 1981; Huttenlocher, Smiley, and Charney 1983; Clark 1978; 2009; Viberg 2002; Noyau 2005; 2008). 가령 {cut, break, do...; couper, casser, faire⁹⁾...}는 일반적, 총칭적 동사이며 {saw; scier}는 구체적 동사, 하위어이다. 총칭적, 일반적 동사는 특징적으로 다양한 양태(manner)를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의미영역에 속하는 논항명사와 공기할 수 있다. 즉 {cut; couper}는 {종이, 옷감, 나무, 벽돌, 플라스틱, 유리...} 등의 다양한 의미부류에 속하는 논항명사와 공기할 수 있다. 반면 구체적 동사는 서로 다른 의미영역에 속하는 대상, 논항명사와는 공기할 수 없다. {saw; scier}는 {종이}, {유리}, {옷감}... 등과는 공기할 수 없고 {나무}하고만 공기할 수 있다. 어휘 습득 과정에서는 총칭적, 일반적 동사가 구체적 동사보다 먼저 습득된다.

영어 모국어 유아, 아동의 경우 {go, do, give, put...} 등의 일반목적 동사(general-purpose verbs) 또는 경동사(light verb)를 자주 사용(Clark 2009: 88)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동사는 대표적인 다의어로 매우 다양한 동작과 행위를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2세 전후의 영어 모국어 유아들의 경우 ‘동작, 움직임’을 기술할 때 go를 다른 자동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총칭적 어휘 사용의 경향은 과대확장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영어 모국어 습득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Levenston and Blum-Kulka 1977; Blum-Kulka and Levenston 1978; Viberg, 1993; 2002; Bybee,

9) {couper, casser, faire, scier}는 각각 {cut, break, do, saw}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분리성 동사이다.

Perkins, and Pagliuca 1994; Hasselgren 1994; Källkvist 1999; Altenberg and Granger 2001; Dewaele and Pavlenko 2003) 아동들은 총칭적 성격의 동사, 기초 수준 동사(basic level verbs) 또는 고빈도 동사(high frequency verbs)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총칭적 동사는 ‘핵 동사’(nuclear verbs)로 지칭(Viberg 1993; 2002)되기도 하며, 언어 습득기 아동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장치이다(Dewaele 1993; Hasselgren 1994). 기본적으로 총칭적 동사, 핵동사는 대부분 다의어이므로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가능성이 높고, 적은 수의 어휘만으로도 다양하고 상이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어 습득기 유아 또는 아동이 자주 동원하는 의사소통, 인지 전략 중 하나인 총칭적 동사, 총칭적 어휘의 사용을 논의한 국내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기술하고 연구 방법을 연구 대상, 검사 도구 및 실험 절차 등의 순으로 논의한다.

3.1. 연구 문제

여러 개별언어 화자의 동사 산출 능력을 《Approx》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모국어 화자에 비해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approx 동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DuVignau and Rohr(2014)에서 프랑스어 사용자의 approx 동원율은 3세 46.20%, 4세 30.90%, 5-6세 21.20%와 성인은 5.40%를 보였다. 독일어 사용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동일한 연령대에서 각각 43.10%, 30.50%, 25.10%와 성인 4.70%를 보였

다. 즉 프랑스어, 독일어 사용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approx 사용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실험을 영어 모국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approx는 7.20%(Smith 2013: 149)로 나타났고, 중국어 모국어 아동(37~49개월, 평균 43.18개월)의 approx는 24.62%, 성인(19~24세)은 8.53%로 나타났다(Chen 2006). 반면 한국어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자의 일련의 선행 연구(황순희·최진남 2014; 황순희 2016)에 의하면 approx 동원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50.30% 였다. <표 1>은 개별 언어 모국어 화자의 approx 사용 비율이다.

<표 1> 개별어 사용자에 따른 approx 사용 비율

연령	프랑스어 사용자		독일어 사용자		중국어 사용자		영어 사용자		한국어 사용자	
	conv.	approx.	conv.	approx.	conv.	approx.	conv.	approx.	conv.	approx.
3세	53.80%	46.20%	56.90%	43.10%	75.38%	24.62%	-	-	-	-
4세	69.10%	30.90%	69.50%	30.50%			-	-	49.70%	50.30%
5-6세	78.80%	21.20%	74.90%	25.10%	-	-	-	-	-	-
20-40세 (성인)	94.60%	5.40%	95.30%	4.70%	91.47%	8.53%	92.80%	7.20%	81.07%	18.93%

한국어 아동 및 성인이 비슷한 연령대의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영어 사용 화자에 비해 approx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 더 나아가 어떠한 이유에서 한국어 아동은 approx를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정상 성인의 경우는 왜 그런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한국어 모국어 아동과 성인의 approx 동원율과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한국어 모국어 아동과 성인의 approx 사용은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3.2. 연구 대상¹⁰⁾

연구 대상은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40명, 남 : 여 = 23 : 17)과 성인(17명, 남 : 여 = 5 : 12)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동작 명명하기 과제를 수행하여 집단별 동사 산출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부산 지역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며, 현재까지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적으며 부모 모두 한국인이다. 또한, 아동들의 어머니 보고에 의하면 아동들은 모두 출생 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어떠한 의학적 혹은 감각적 문제에 대한 병력도 없었다. 한편 성인군은 연구대상 아동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 10명과 일반 대학생 7명으로 구성하였다. 특별히 유치원 교사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동의 어휘 습득 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가 언어적 입력이기 때문으로, 아동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내면서 교사들로부터 많은 언어자극을 받게 된다. 모든 실험은 2016년 6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부산시 소재 유치원 2곳의 회의실 및 따로 독립된 조용한 공간에서 1명씩 실시하였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4.07세(48.90개월)(범위: 35-58개월, SD: 4.53)이며, 성인은 27.82세(범위: 20-40세, SD: 6.41)이다. 또한, 성인의 학력은 박사 1명, 박사수료 1명, 석사졸업 3명, 학사졸업 5명, 학사 재학 7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 대상자의 성별, 연령의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10) 본 연구의 언어실험 데이터를 확보함에 있어 아동들의 발화를 녹취하여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분석할 것이라는 허가를 구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연구자가 직접 실험 동의서를 받았다.

<표 2>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집단	인원수 (명)	성별(명)		범위	평균연령	SD
		남	여			
아동군	40	23	17	35-58개월	4.07세 48.90개월)	4.53
성인군	17	7	15	20-40세	27.82세	6.41

3.3. 검사 도구 및 실험 절차

한국어 아동과 성인의 동사 산출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도구로 《Approx》를 이용하였다. 테스트 전 과정은 녹음한 후 48시간 이내에 전 사본으로 작성하였다. 테스트에 참여한 연구원은 언어습득 분야 박사급 연구원 1인, 신경심리언어학 분야 박사급 연구원 1인, 본 연구진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학부생 1인이다.

3.3.1. 《Approx》

《Approx》는 100명의 프랑스 아동과 100명의 프랑스 성인 화자의 발화 코퍼스를 기초로 툴루즈 2대학(Université de Toulouse II)이 개발한 동영상으로(Duvignau, Fossard, Gaume, Pimenta, and Elie 2007) 17가지 동작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17가지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리성 동작(예. 썰다, 자르다, 벗기다, 깎다, 까다...)들로 여자 주인공이 특정한 행위를 수행한다(행위 당 소요 시간 1분 이내). 실험절차는 17개 중 4개 동영상을 피험자에게 한 개씩 보여주고 동영상에서 주인공이 수행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질문하여(“여자가 무엇을 했나요?”) 동사를 이용해 답하도록 유도한다. 기본적으로 피험자의 답변은 심리 언어학적, 신경 언어학, 언어 병리학적 관점에서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명하기(denomination)

와 다시 표현하기(reformulation)의 두 번에 나눠 받는데, 이 연구는 명명하
기의 답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3.3.2. 규범적 자료(Normative Data)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연구 대상으로 부터 나올 수 있는 답변을 미리
예측하고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62명의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Approx》를 이용하여 동사 능력 측정 실험을 시
행하여 동사목록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규범적 자료¹¹⁾인 동사¹²⁾
는 총 99개이다.

3.4. 자료 분석 기준

데이터 분석 기준¹³⁾은 답변의 ① 근사치(예측성, expectancy), ② 총칭
성(genericity)의 기준으로 답변을 분석하였다.

-
- 11) 한국어 분리성 동사는 {깨버리다, 떼어내다, 뜯어내다, 집어넣다...} 등의 연속동사(serial verbs), 상적 속성(aspectual property)이 포함된 복합동사(compound verbs) 구성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중 {깨지다, 깨트리다, 내려놓다, 망가트리다...} 등의 사전 등재어는 각각을 개별 어휘로 처리하였고, {깨버리다, 망치게 하다...} 등의 미등재어는 유사 어휘인 {깨다, 망치다...} 등과 동일 어휘로 처리하였다.
 - 12) 자세한 동사 목록과 관련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황순희·최진남(2014; 2015)를 참조하라.
 - 13)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준은 다음 4가지로, 답변의 ① 유효성(validity), ② 구체성·총칭성(specificity·genericity), ③ 예측성(expectancy), ④ 영역-내, 영역-간 근사치 등의 4가지(Duvignau, Gaume, Pimenta, and Elie 2007)인데, 자세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황순희·최진남(2014)을 참조하라.

4. 연구 결과 및 논의

4장에서는 두 집단의 approx 산출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논의한다.

4.1. 집단별 approx와 영역 이동 분포

<표 3>은 집단별 approx 분포와 영역 이동 비율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집단별 approx와 영역 이동 분포

분류	집단	Break-Type		Remove-Type	
		풍선을_터트리다	토마토를_터트리다	레고를_빼다	당근(껍질)을_벗기다
Approx	아동	5회	17회	25회	27회
		12.50%	42.50%	62.50%	67.50%
	성인	6회	15회	4회	8회
		35.29%	88.24%	23.53%	47.06%
영역 이동	아동	2회	15회	19회	25회
		40.00%	88.24%	76.00%	92.59%
	성인	6회	9회	4회	8회
		100.00%	60.00%	100.00%	100.00%

첫째, 집단별 approx 사용 비율은 동사 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approx 동원 비율은 4가지 동작에서, 각각 12.50%, 42.50%, 62.50%, 67.50%로 Remove-type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인 approx는 35.29%, 88.24%, 23.53%, 47.06%로 상대적으로 Break-type에서 높게 나타났다. 동사 범주에 따른 어휘 습득을 폭넓게 다룬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성인의 동사 범주 인식 및 의미범주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Clark(1973), Gentner(1975), Schaefer(1979), Bowerman(1980)의 결과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동사의 의미범주화는 동사와 공기하는 논항명사의 의미자질(semantic features) 및 비언어적 단서(non-linguistic clues)와 관련이 있다(Clark 1973; Schaefer 1979). 여기서 비언어적 단서란 논항명사의 모양(shape), 크기(size), 소리(sound), 움직임(movement), 질감(texture) 등의 언어 외적 요소를 뜻한다. 아동이 특정 동작 또는 행위(동사)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동사 의미범주화는 성인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은 특정 동작, 행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분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사의 의미범주화에는 어떠한 요소가 관여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Gentner(1975), Schaefer(1979), Bowerman(1980)은 아동과 성인의 동사 의미범주화에 어떤 요소, 자질이 관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Gentner(1975)는 아동의 동사 의미범주화의 대표적인 의미자질로 DO, CAUSE, TRANSFER 등의 보편적 자질을 제시하였고, Bowerman(1980)은 사역(feature CAUSE) 자질을 제시하였다. 즉 아동은 이러한 의미 자질에 기초하여 동사의 의미를 분류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Schaefer(1979)는 아동과 성인의 동사 의미범주화를 분리성 동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아동은 도구(instrument), 개체명사(논항명사, object), 행위자체(action) 등의 기준을 기초로 분리성 동사를 분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와 다소 상반된 주장인 Rosch and Mervis(1977)는 아동의 동사 의미범주화는 추상적 차원에서 기본적 대상물(basic objects)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아동은 특정 행위나 동작을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분류 시 특정한 준거로 의미 자질을 동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분리성 동사를 분류하는 대표적 자질로는 도구, 개체, 행위가 관여한다고 보았다(Schaefer 1979: 64).

둘째, 아동과 성인의 *approx*는 대부분 영역 이동에 의한 경우였다. 가령 <풍선을_터트리다>에 대해 <풍선을_{때리다}>라고 답하는 경우이다. {때리다}는 {터트리다}와 각각 구별되는 상이한 의미영역(의미장)에 속하기 때문이다. *Approx* 동원률을 보면 아동은 각각 40.00%, 88.24%, 76.00%, 92.59%, 성인은 100.00%, 60.00%, 100.00%, 100.00%를 보여 외부 의미 영역으로, 이동에 의한 *approx* 비율은 성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은 인지, 언어 발달 측면에서 미성숙 단계에 있으므로 적절한 어휘의 결여와 부재를 메꾸기 위한 인지적 전략으로 *approx*를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사용 성인의 *approx*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

아동 및 특히 성인의 동사 산출 시 관찰되는 *approx*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Smith(2013)는 본 연구와 동일한 실험 도구인 《*Approx*》로 성인(영어 모국어 화자, 평균 26.6세, 범위 23~30세)의 동사 산출 능력을 실험하였다. Smith(2013)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면 첫째, Smith(2013)에서 성인의 *approx*는 7.2%에 불과했지만, 한국어 성인 *approx*는 4가지 동작에 따라 각각 35.29%, 88.24%, 23.53%, 47.05%를 보여 영어권 사용자 성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둘째, Smith(2013)에서 성인 *approx*는 다른 의미 영역으로의 이동(*extracategorical*) 유형이 80%에 달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각각 100%, 60%, 100%, 100%를 보여 두 연구 결과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인 *approx*는 외부 의미 영역으로 이동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pprox*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Duvignau 2003; Smith 2013).

4.1.1. 영역-내 이동(intracategorical; within-domain)

첫 번째 유형은 영역-내 이동에 의한 approx이다. 이 유형은 답변한 동사와 목표 동작 동사가 서로 동일한 의미장에 속하지만, 각각의 논항 명사 속성은 다른 경우이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 영역-내에서 이동이 일어났다. 가령 <종이를_찢다>에 대해 <종이를_깨다>라고 답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찢다}와 {깨다}는 동일한 의미장([Break])에 속하지만, 두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 명사의 의미 속성은 서로 다르다. {찢다}는 {종이, 수건, 봉투...} 등의 ‘접을 수 있고, 잡아당겨 가를 수 있는’ 속성의 물체를 논항 명사로 허용하지만, {깨다}는 ‘단단한 물체’를 논항 명사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풍선을_터트리다>에 대해 <풍선을_부수다, 부서트리다>로 답할 경우 역시 {터트리다}와 {부수다}는 동일한 의미장([Break])에 속하지만, 역시 두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 명사의 의미 속성은 서로 다르다. {터트리다}는 ‘둘러싸여 막혔던 것’을, {부수다}는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으로’라는 논항 명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답변이 목표 동작을 정확히 기술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찢다}는 {깨다}와, {터트리다}는 {부수다}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1.2. 외부 영역으로의 이동(extracategorical; between-domain)

본 연구 결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외부 영역으로의 이동에 의한 approx이다. 이 유형의 approx는 목표 동작의 의미 영역과는 무관한, 다른 의미 영역으로 이동이 발생한다. 가령 <호두를_깨다>에 대해 <호두를_열다>라고 답하는 경우이다. {열다}는 [Cut], [Break] 등과는 구별되

는 서로 무관한 의미영역이다. 외부 의미 영역으로의 approx 역시 본질적으로 어휘 공백을 메꾸려는 목적에서 출발하며, 규범적 발화와 구별되는 목표 동작의 의미 영역과 다른 영역에 속한 근접한 발화를 뜻한다. 이러한 전략은 목표 동작과 근접하다고 판단한 또 다른 행위를 목표 동작과 연관 짓는 능력이며, 전략적 근사치(strategic approximation)(Tarone 1980)에 해당한다. 위의 예, {열다}는 {까다}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속성을 공유(Bowerman 2005) 하므로 화자는 이 속성을 통해 두 동사를 서로 연관 짓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아동 및 성인의 approx가 의미 영역, 의미장을 넘나들거나 혼동하며 발생하는 영역-간 이동에 의한 approx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Schaefer(1979), Pye, Loeb, and Pao(1996), Erkelens(200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또 다른 유형의 approx는 이른바 ‘은유’이다. 즉 화자는 목표 동작을 직접 기술하지 않고 은유적 표현(metaphoric utterance)을 동원하기도 한다. 가령, <컵을_깨다>에 대해 <컵을_{팬다, 때렸다}>로, <토마토를_터트리다>에 대해 <토마토를_{치다, 때리다, 부수다...}> 등으로 답하는 경우이다. {터트리다}와 {때리다, 치다...}는 각각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갈라져서 무너지게 또는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뚫어지거나 찢어지게 하다(터트리다)’와 ‘손이나 손에 든 물건 따위로 아프게 치다(때리다)’로 일정 부분 [분리], [분절]의 의미를 공유하지만, 두 동사는 내재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 속성을 지닌 대상만을 각각 논항명사로 허용하기 때문에 {때리다, 치다..}는 {터트리다}의 ‘은유’ 표현에 해당한다.

4.1.3. 영역-간 이동(intercategorical)

이 유형의 approx는 대개 [Cut]과 [Break] 영역 간의 이동만을 뜻한다. 가령 <얼음을_깨다>에 대해 <얼음을_{자르다}>로 말하면서 서로 구분

되는 의미 영역, 의미장인 [Cut]과 [Break] 간 상호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4.2. Approx의 영역 이동 양상

앞 절에서 본 바처럼 성인의 approx는 다른 의미 영역으로의 이동이 많은 반면, 아동 approx는 특징적으로 성인보다 다양한 의미 영역을 동원하고 있었다.

4.2.1. 아동 approx의 영역 이동

<표 4>는 아동 approx에 나타난 영역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으로, 아동 approx의 영역 간 approx는 비교적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났다. Break-type의 <토마토를_터트리다>는 C¹⁴), PC, PC+S, L 등 영역으로, Remove-type의 <레고블_빼다>에 대해 B, M, L, PC, S 등으로 영역 변경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 [Break] 영역의 {터트리다}는 [Cut], [Physical contact], [Link] 등의 의미영역과, [Remove] 영역의 {빼다}는 [Break], [Movement], [Link], [Physical contact], [State change] 등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4) 편의상 약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B: [Break], C: [Cut], R: [Remove], PC: [Physical contact], M: [Movement], L: [Link], S: [State change].

<표 4> 아동 approx의 영역 이동

Break-Type						Remove-Type					
풍선을_터트리다			토마토를_터트리다			레고를_빼다			당근(깍집)을_벗기다		
Approx	SF ¹⁵⁾	횃수	Approx	SF	횃수	Approx	SF	횃수	Approx	SF	횃수
치다	PC	1	쪼개다	C	1	부서지다	B	2	자르다	C	24
때리다	PC	1	누르다	PC	5	떼다	R	6	떼다	R	2
부수다	B	1	납작하게 하다	PC + S	1	놔두다	M	1	썰다	C	1
부서지다	B	1	치다	PC	3	꽃다	L	1			
부서트리다	B	1	꽃다	L	1	취다	PC	1			
			때리다	PC	1	만들다	S	7			
			부서트리다	B	1	풀다	S	1			
			찌그러지게 하다	PC + S	1	자르다	C	1			
			망가트리다	PC + S	1	올리다	M	1			
			부수다	B	1	부수다	B	3			
			찌푸리다	S	1	정리하다	S	1			
합계		5			17	0		25	0		27

4.2.2. 성인 approx의 영역 이동

<표 5>는 성인 approx에 나타난 영역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아동 approx의 영역 이동과 비교할 때, 성인은 Break-type의 <토마토를_터트리다>에 대해 PC, PC+S, M 으로, Remove-type의 <레고를_빼다>에 대해 M, C 영역으로 변경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성인은 [Break] 영역의 {터트리다}는 [Physical contact], [Movement] 영역으로, [Remove] 영역의 {빼

15) 편의상 약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SF. = semantic field(의미 영역, 의미장), Aux: (보)조동사, Ge: generic, Sp: specific.

다}는 [Movement], [Cut] 영역과 관련이 있었다.

<표 5> 성인 approx의 영역 이동

Break-Type						Remove-Type					
풍선을_터트리다			토마토를_터트리다			레고를_빼다			당근(깍질)을_벗기다		
Approx	SF	횟수	Approx	SF	횟수	Approx	SF	횟수	Approx	SF	횟수
치다	PC	3	치다	PC	1	옮기다	M	1	긁다	PC	1
내리치다	PC	1	내리치다	PC	1	내려놓다	M	1	썰다	C	5
때리다	PC	2	으깨다	B	4	나누다	C	1	미끄러지다	M	1
			누르다	PC	1	늘어놓다	M	1	자르다	C	1
			짓누르다	PC	1						
			내려놓다	M	1						
			몽개지다	PC+S	1						
			몽개다	PC+S	1						
			으스러트리다	B	1						
			부수다	B	1						
			짓이기다	PC+S	2						
합계		6			15			4			8

동사 approx의 의미장, 의미영역 이동을 다룬 선행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동의 approx는 성인보다 다양한 의미영역 이동에서 일어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아동과 성인의 동사 범주화 전략이 서로 다를 것을 밝힌 Clark(1973), Schaefer(1979)와 일치하는 것이다. Clark(1973)는 두 집단의 아동들(① 4.4-5.2세, ② 6.5-7.6세)과 성인(19-30세)을 대상으로 33여개 동작, 행위를 대상으로 동사 범주화를 실험한 결과, 두 집단의 아동들은, 대부분의 개별 동작, 행위를 두 가지 이상의 동작 또는 행위로 인식하여, 2개 이상의 동사를 동원하여 분류하였다. 반면 성인은 1가지 행위로 인식하고 1개

의 동사로 분류하였다. 즉 아동은 한 가지 동작, 행위를 여러 개(한 개 이상)의 동작, 행위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른바 ‘범주화 오류(miscategorization)’를 자주 범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동은 행위 [Peel]을 [Cut], [Tear], [Open] 등으로 인식하였고, [Cut]은 [Break], [Open]으로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아동과 성인이 동사 의미범주화, 분류에 동원하는 의미자질의 내부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Schaefer 1979:70)으로 해석되었으며, Clark(1973)도 아동의 의미 범주화에는 성인에게는 존재하는 유관 의미자질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의미영역 이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은 성인의 의미범주화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3. Approx의 총칭성 분포

다음으로 두 집단의 approx에 어떤 총칭적 어휘가 얼마나 동원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은 집단별 approx에 동원된 총칭성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표 6> Approx의 총칭성

분류	집단	Break-Type		Remove-Type	
		풍선을_터트리다	토마토를_터트리다	레고를_빼다	당근(깍질)을_벗기다
Generic	아동	1회	9회	20회	26회
		20.00%	52.94%	80.00%	96.30%
	성인	3회	3회	4회	2회
		50.00%	20.00%	100.00%	25.00%

집단별 approx에 나타난 총칭적, 일반적 동사의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가지 동작에 대해 아동은 20.00%, 52.94%, 80.00%, 96.30%, 성인은 50.00%, 20.00%, 100.00%, 25.00%를 보였다. 또한, <표 7>과 <표 8>은 아동과 성인의 approx에 사용된 총칭적 어휘 유무와 양태 표지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아동 approx에 사용된 총칭적 어휘는 Break-type은 {치다}, {누르다, 치다}, Remove-type은 {떼다, 만들다}, {자르다}이다. 반면 성인 approx에 사용된 총칭적 어휘는 Break-type의 {치다}, {치다, 누르다, 내려놓다}, Remove-type은 {옮기다, 내려놓다, 나누다, 늘어놓다}, {자르다, 미끄러지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어휘 습득 시 구체적 어휘, 하위어보다 일반적, 총칭적 어휘, 상위어가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사용될 경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Bernicot 1981; Huttenlocher, Smiley, and Charney 1983; Clark 1978; 2009; Viberg 2002; Noyau 2005;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총칭적 어휘는 특정 의미 영역을 대표하는 동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인의 approx에 사용된 총칭적 어휘 각각은 Break-type, Remove-type의 대표 동사로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성인의 총칭성 어휘 동원 역시 approx 사용 시의 한 가지 전략을 볼 수 있다. 성인의 총칭성 어휘 사용 양상과 전략을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가 거의 없으며, 유일하게 Smith(2013)는 성인의 총칭성 어휘 사용률을 29.8%로 보고하였다. 이 수치는 발화 전체에 나타난 비율로 성인은 목표 동작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구체적 어휘, 하위어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게(70.2%)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용 성인 발화 중 총칭성 어휘 사용 분포 및 양상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7> 이동 approx의 충칭성과 양태 표지

BREAK-TYPE				REMOVE-TYPE											
풍선을 터트리다				토마토를 터트리다				레고를 빼다				당근(겉질)을 벗기다			
Approx	Aux	Hits	Ge-Sp	Approx	Aux	Hits	Ge-Sp	Approx	Aux	Hits	Ge-Sp	Approx	Aux	Hits	Ge-Sp
치다		1	Ge	쪼개다			Sp	부서지다	-어지다	2	Sp	자르다		24	Ge
패리다				누르다		5	Ge	베다		6	Ge	베다		2	Ge
부수다				남작하게 하다	게하다	1	Ge	뇌두다	복합 동사	1	Ge	썰다		1	Sp
부서지다	-어지다	1	Sp	치다		3	Ge	꽃다		1	Ge				
부서트리다	-트리다	1	Sp	꽃다		1	Ge	취다		1	Ge				
				패리다		1	Sp	만들다		7	Ge				
				부서트리다	-트리다	1	Sp	풀다		1	Ge				
				찌그러지게 하다	-게하다	1	Ge	자르다		1	Ge				
				망가트리다	-트리다	1	Gc	올리다		1	Ge				
				부수다		1	Sp	부수다		3	Sp				
				찌푸리다		1	Sp	정리하다		1	Ge				
합계		5				17		0		25		0		27	

<표 8> 성인 approx의 충칭성과 양태 표지

BREAK-TYPE				REMOVE-TYPE											
풍선을_터트리다				토마토를_터트리다				레고를_빼다				당근(깍질)을_벗기다			
Approx	Aux	Hits	Ge-Sp	Approx	Aux	Hits	Ge-Sp	Approx	Aux	Hits	Ge-Sp	Approx	Aux	Hits	Ge-Sp
치다		3	Ge	치다		1	Ge	옮기다	'기다'	1	Ge	긁다		1	Sp
내리치다	'위에서 아래로'	1	Sp	내리치다	'위에서 아래로'	1	Sp	내려놓다	'위에서 아래로'	1	Ge	떨다		5	Sp
때리다		2	Sp	으깨다		4	Sp	나누다		1	Ge	미끄러지다		1	Ge
				누르다		1	Ge	들어놓다	양태	1	Ge	자르다		1	Ge
				짓누르다	'짓'	1	Sp								
				내려놓다	'위에서 아래로'	1	Ge								
				몽개치다	-어지다	1	Sp								
				몽개다		1	Sp								
				으스러트리다	-트리다	1	Sp								
				부수다		1	Sp								
				짓이기다	'짓'	2	Sp								
합계		6				15				4				8	

4.4. Approx의 양태 표시

특징적으로 한국어 모국어 아동과 성인의 approx에는 다른 언어권 화자와 달리 다양한 양태 표시가 다수 동원된다. <표 7>, <표 8>에서 아동과 성인의 approx에 사용된 양태 표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아동 approx에 동원된 양태 표시는 크게 ① 보조동사 ‘-어지다’ {부서지다}(총 3회), ② 보조동사 ‘-게 하다’ {납작하게 하다, 찌끄러지게 하다}(총 2회), ③ 접미사 ‘-트(뜨)리다’ {부서트리다, 망가트리다}(총 3회), ④ 복합동사 {놔두다}(총 1회)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성인의 approx에 동원된 양태 표시 역시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아, ① 보조동사 ‘-어지다’ {몽개지다, 미끄러지다}(총 2회), ② 접미사 ‘-기-’ {옹기다}(총 1회), ‘-트리다’ {으스러트리다}(총 1회), ③ 접두사 ‘짓’ {짓누르다, 짓이기다}(총 3회), ④ 복합동사 {늘어놓다}(총 1회) ⑤ 기타 양태 표시(‘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다, 내려놓다}(총 4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모국어 아동과 성인의 approx에는 본동사뿐만 아니라 보조동사, 접사(접두사, 접미사), 복합동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화자의 다양한 양태가 전달되었다.

‘양태’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또는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 화자의 의견이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 범주로 다양한 언어 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한국어의 다양한 양태 표현은 동사 구성에도 반영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등의 유럽어의 동사 구성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다. 즉 특정 행위, 동작에 대해 화자의 태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위 예에서 ‘-어지다’(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말), ‘-게 하다(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 ‘뜨(트)리다(‘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기다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짓(‘마구’, ‘함부로’,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등의 개별 의미가 화자의 태도, 의견(화자 양태) 등에 따라 중립적 동작, 행위에 추가되어 보다 세분화된 의미가 표현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국어 아동들은 다른 언어권의 또래들보다 동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산출할 줄 아는 유아기를 거쳤다. 그럼에도 한국어 모국어 화자 아동과 성인은 다른 언어권 화자에 비해 *approx*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pprox*는 적절한 어휘의 결여, 부재 등을 겪을 때 동원되는 의사소통 전략으로, 화자가 *approx*를 동원한다고 보다 적확하고 규범적인 어휘를 전혀 모른다거나, 그 어휘가 개인 어휘집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례적 현상에 대해 이 연구는 한국어 아동, 성인이 다른 언어권 화자보다 *approx*를 많이 사용하는 양상과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수행한 선행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Break-type* 동사와 *Remove-type* 동사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와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아동과 성인 모두 *approx*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성인의 *approx* 사용 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동이 *approx*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어휘의 결여 및 부재로 인한 어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인지적 전략으로, 이는 인지 발달상 당연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언어 습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언어 입력으로 아동은 실제로 *approx* 사용이 많은 성인에게서 언어를 듣고 접했기 때문에 *approx*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제도권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어휘가 충분히 발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인의 *approx* 사용 비율이 높다는 점은 쉽게 설명되기 어려웠다.

둘째, 아동과 성인은 ‘영역 이동’에 의한 **approx**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 경우 총칭적, 일반적 어휘의 동원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과 성인 공히 목표동작에 부합하는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할 경우 해당 동작과 인접하다고 판단한 의미 영역으로 이동하여, 가능한 총칭적, 일반적 어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영역 이동은 성인보다 다양한 의미 영역에서 일어났다. 이 결과는 아동은 한 가지 동작 또는 행위를 여러 개(한 개 이상)의 동작, 행위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문에 범주화 오류가 성인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Clark(1973), Schaefer(197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한국어 동사 구성은 다른 언어, 특히 유럽어에 비해 상당히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 체계(*lexical richness*)를 지닌다. 가령 ① 본동사에 ‘-어지다’, ‘-게 하다’ 등의 보조동사 추가, ② 접두사, 접미사 추가를 이용한 의미 세분화(예. {짓누르다, 짓이기다}, {부서트리다, 으스러트리다, 망가트리다}, {옹기다}...) , ③ ‘양태’ 표지가 포함된 복합동사 구성(예. {내리치다, 내려놓다}, {늘어놓다}...) 등과 같은 다양한 동사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연속동사, 상적 속성이 포함된 복합동사 구성 등은 동일한 목표 동작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장치가 된다. 이러한 한국어 동사 구성의 다양성은 본 연구 데이터에서도 가령, <토마토_터트리다>에 대해 {치다, 내리치다, 으깨다, 누르다, 짓누르다, 내려놓다, 뭉개지다, 으스러트리다...} 총 15가지 다양한 유형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동사 구성 방법 및 양상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 동사의 어휘 풍부성¹⁶⁾이 목표 동작 어휘를 선정하는 데에 인지적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확장된 표본 분석을 통해 심도있는 확인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16) 한국어 동사의 ‘풍부성’은 통사·의미론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로, ‘이동 동사’만을 다룬 Hong(1985)을 보면 한국어 동사는 다양한 구성방식(예. 보조용언, 접사, 복합동사 등)을 통해 어휘적 풍부성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한국어 성인의 approx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한 한국어 동사의 ‘어휘 풍부성’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동사 구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다룬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 화자는 한국어 동사 어휘 체계의 풍부성 덕분에 다양한 인지적 과정을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장치는 화자가 특정 동작, 행위를 인지하고 인식함에 있어 어느 부분과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예. 동작, 행위 그 자체, 동작의 과정, 결과, 구체적 양상, 화자 스스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를 다소 불분명하게 만들어 정확한 동사 어휘 선택에 어려움을 제공하므로 자연스럽게 approx의 사용이 많아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아동과 성인의 approx 사용률과 양상을 분석하고자 Break-type, Remove-type에 속한 4가지 동작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표본 크기는 각각 40명(평균 48.90개월), 17명(평균 27.82세)이며 분석 대상 동작은 4가지로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고 표본을 확장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 연구로 4가지 동작만을 분석한 실험 연구로 향후 실험 도구인 《Approx》가 원래 대상으로 하는 17가지 동작을 모두 추가 실험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화자의 approx 사용 이유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사용자의 approx는 집단별, 동작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고, 외부 의미 영역으로의 이동에 의한 approx가 많았으며, 충칭성 어휘 동원, 그리고 양태 표지 등이 approx 표현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른 언어권 사용자에 비해 approx 사용

률이 높은 이유로 한국어 고유의 다양하고 발달된 동사 구성 체계와 양태 표지 사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실험을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본 연구 결과와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어에 따른 *approx*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통합적인 설명력을 확보하고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어 사용 아동, 성인의 동사 산출 시 *approx*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언어권 화자에 비해 한국어 사용자의 *approx* 사용률이 높다는 유의한 결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approx* 사용과 한국어의 다양한 동사 구성 방식이 인지적으로 영향 관계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황순희(2016). 한국어-프랑스어 이중언어 아동의 양국어 기반 동사 산출능력, <담화와 인지> 23-1, 담화·인지언어학회. 251쪽~277쪽.
- 황순희·최진남(2014). 한국어-프랑스어 이중언어 아동과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의 동사 산출하기: 분리성 동사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1-2, 담화·인지언어학회. 109쪽~134쪽.
- 황순희·최진남(2015). 한국어-프랑스어 이중언어 아동의 동사 표현 양상과 다양성, <이중언어학> 58, 이중언어학회. 169쪽~195쪽.
- 황순희 & Duvignau, K.(2013). 군집분석 기법을 이용한 프랑스어와 한국어 분리성 동사의 의미 범주화 사례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38, 한국프랑스학회. 301쪽~329쪽.
- Agustín Llach, M.P.(2005). A critical review of the terminology and taxonomies used in the literature on lexical errors. *Miscelánea: A Journal of English and American Studies* 31, 11-24.
- Altnerberg, B., & Granger, S.(2001). The grammatical and lexical patterning of MAKE in native and non-native student writing. *Applied linguistics* 22:2, 173-195.

- Bernicot, J.(1981). *Le développement des systèmes sémantiques de verbes d'action*. Paris: Editions du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Bialecka-Pikul, M.(2003). Metaphors in preschool child thinking about the mind. *Psychology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7:2, 37-47.
- Blum, S., & Levenston, E.A.(1978). Universals of lexical simplification. *Language Learning* 28.2, 399-415.
- Bohnemeyer, J.(2007). Morpholexical relatedness and the argument structure of verbs of cutting and breaking. *Cognitive Linguistics* 18.2, Berlin: Walter De Gruyter, 153-177.
- Bowerman, M.(1978). The acquisition of word meaning: An investigation into some current conflict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Wiley, 263-287.
- Bowerman, M.(1980). The structure and origin of semantic categ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hild. *Symbol as sense: New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meaning*, eds. by M.L.C. Foster & S.H. Brandes, 277-299. New York: Academic Press.
- Bowerman, M.(2005). Why can't you "open" a nut or "break" a cooked noodle? Learning covert object categories in action word meanings. *Building object categories in developmental time: 32nd Carnegie Symposium of Cognition*, eds. by L. Gershkoff-Stowe & D.H. Rakison, 209-243.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roderick, V.(1991). Young children's comprehension of similarities underlying metaphor.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0:2, 65-81.
-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en T.P.(2006). *Semantic approximations in the early verbal lexicon acquisition of Chinese: flexibility against error*, 1-12.
- Choi, S.(2006).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input on spatial cognition: Categories of containment. *First Language* 26:2, 207-232.
- Choi, S., & Bowerman, M.(1991).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 The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lexicalization patterns. *Cognition* 41, 83-121.
- Choi, S., & Gopnik, A.(1995). Names relational word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English and Korean speaker: Nouns are not always learned before verbs. *Beyond names for things: Young children's acquisition of verbs*, eds. by M. Tomasello & W.E. Merriman, 63-80. New York: Lawrence Erlbaum. Hillsdale.

- Clark, E.V.(1973). What's in a word? On the child's acquisition of semantics in his first language.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ed. by T.E. Moore, 65-110. New York: Academic Press.
- Clark, E.V.(1978). Discovering what words can do,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the lexicon*, 34-57. Chicago: Chicago Linguistics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 Clark, E.V.(1993). *The lexicon in acquisition*. Vol. 6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E.V.(2009). *First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waele, J.-M., & Pavlenko, A.(2003). Productivity and lexical diversity in native and nonnative speech: A study of cross-cultural effects. *Effects of the second language on the first 3*, ed. by Vivian Cook, 120-141.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Duvignau, K.(2002). *La métaphore, berceau et enfant de la langue: la métaphore verbale comme approximation sémantique par analogie dans les textes scientifiques et les productions enfantines (2-4 ans)*. PhD. dissertation—Linguistics. Université Toulouse.
- Duvignau, K.(2003). Métaphore verbale et approximation. Regards croisés sur l'analogie. *Revue d'Intelligence Artificielle*, n°spécial 5/6, eds. by Karine Duvignau, Olivier Gasquet & Bruno Gaume, 869-881. Paris: Hermès Lavoisier.
- Duvignau, K., Gaume, B., & Nespoulous, J.-L.(2004 a). Proximité sémantique et stratégies palliatives chez le jeune enfant et l'aphasique. *Parole* 31:32, 219-255.
- Duvignau, K., Gardes-Tamine, J., & Gaume, B.(2004 b). Approximations sémantiques enfantines et distance inter-verbes: pour une organisation proxémique du lexique verbal. *Le langage et l'homme* 39:2, 123-141.
- Duvignau, K., Fossard, M., Gaume, B., Pimenta, M-A., & Elie, J.(2007). Semantic approximations and flexibility in the dynamic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meaning. *Metaphor and context: Linguagem em Discurso* 7:3, 371-389.
- Duvignau, K., & Garcia-Debanc, C.(2008). Un apprentissage du lexique verbal par proximité sémantique: quand la représentation lexicale facilite la tâche d'écriture. *Les apprentissages lexicaux: lexique et production verbale*, eds. by Francis Grossmann & Sylvie Plane, 17-42. Villeneuve d'Ascq: Presses

-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 Duvignau, K., & Rohr, A.(2014). Acquisition des verbes chez l'enfant de 3 à 6 ans en français et en allemand. *SHS Web of Conferences* 8, 1469-1484, EDP Sciences.
- Erkelens, M.(2003). *The semantic organization of "cut" and "break" in Dutch: A developmental study*. PhD. dissertation, free University Amsterdam Amsterdam.
- Gelman, S.A., Croft, W., Fu, P., Clausner, T., & Gottfried, G.(1998). Why is a pomegranate an apple? The role of shape, taxonomic relatedness, and prior lexical knowledge in children's overextensions of apple and dog. *Journal of Child language* 25:02, 267-291.
- Gentner, D.(1975). Validation of a related-component model of verb meaning. *Papers and Reports on Child Language Development* 10, 69.
- Gentner, D.(1982). Why nouns are learned before verbs: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Language development* Vol.2, ed. by Stan Kuczaj II, 301-334. NJ: Erlbaum Hillsdale.
- Hasselgren, A.(1994). Lexical teddy bear and advanced learners: a study into the ways Norwegian students cope with English vocabulary.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4:2, 237-260.
- Hong, C.S.(1985). *Syntaxe des verbes de mouvement en coréen contemporain*. Vol. 12,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Huttenlocher, J., Smiley, P., & Charney, R.(1983). Emergence of action categories in the child: Evidence from verb meanings. *Psychological Review* 90:1, 72-93.
- Jakobson, R.(1956). 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 In R. Jakobson and M.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55, Mouton & Co.
- Jakobson, R.(1963).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 Les fondations du langage, Paris: Minuit.
- Källkvist, M.(1999). Form-class and task-type effects in learner English. *A study of advanced Swedish learners* 95. Lund University Press: Lund.
- Levenston, E.A., & Blum-Kulka, S.(1977). Aspects of Lexical Simplification in the Speech and Writing of Advanced Adult Learners. The Notions of Simplification, Interlanguages and Pidgins and Their Relation to Second Language Pedagogy. (*Acts of the Fifth Neuchatel Colloquium on Applied Linguistics*).
- Levin, B.(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garano, M.(1997). Production et compréhension des métaphores chez l'enfant.

Archives de psychologie 253, 141-165.

- Majid, A., Staden, M.V., Boster, J.S., & Bowerman, M.(2004). Event categorizatio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885-890. Chicago, IL: Cognitive Science Society.
- Majid, A., Bowerman, M., & Boster, J.S.(2007). The semantic categories of cutting and breaking event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Cognitive Linguistics* 18:2, 132-152.
- Noyau, C.(2005). Le lexique verbal dans l'acquisition d'une langue seconde: verbes de base, flexibilité sémantique, granularité. *Didactique du lexique: langue, cognition, discours*, eds. by Francis Grossmann, Marie-Anne Paveau & Gérard Petit, 65-84, Grenoble: ELLUG.
- Noyau, C.(2008). Place des verbes dans le Français Fondamental, acquisition du lexique verbal en français langue seconde, et didactique du lexique. *Pratiques et représentations de l'oral en FLES, 50 ans après le français fondamental*. Le Français dans le Monde-Recherches et applications, n° spécial, 87-101.
- Pearson, B.Z.(1990). The comprehension of metaphor by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7.01, 185-203.
- Pérez-Hernández, L., & Duvignau, K.(2016). Metaphor, metonymy, and their interaction in the production of semantic approximations by monolingual children: A corpus analysis. *First Language* 36:4, 383-406.
- Pye, C., Loeb, D.F., & Pao, Y.(1996). The acquisition of breaking and cutting. *The proceedings of the twenty-seventh annual child language research forum*, 227-236.
- Ricoeur, P.(1975). *La métaphore vive*. Paris: Seuil.
- Rosch, E., & Mervis, C.B.(1977). Children's sorting: A reinterpretation based on the nature of abstraction in natural categories. *Reading in child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140-148.
- Schaefer, R.P.(1979). Child and adult verb categories. *Kans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1, 61-76.
- Singleton, D.M.(1999). *Exploring the second language mental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C.V.(2013). *Non conventionalité et généralité dans la catégorisation lexicale d'apprenants en anglais L2: le cas de "cut" et "break"*. PhD. dissertation. Université Toulouse le Mirail-Toulouse II.
- Tarone, E.(1980). Communication strategies, foreigner talk, and repair in interlanguage 1. *Language learning* 30:2, 417-428.

- Viberg, A.(1993). 14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on lexical organization and lexical progression. *Progression & regression in language: sociocultural, neuropsychological, & linguistic perspectives*, 340.
- Viberg, A.(2002). Basic verb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vue Française de Linguistique Appliquée* n° VII-2, 61-79.
- Waxman, S., & Gelman, R.(1986). Preschoolers' use of superordinate relations in classification and language. *Cognitive Development* 1:2, 139-156.
- Winner, E.(1978). New names for old things: the emergence of metaphoric language. *Journal of child Language* 6, 469-491.
- Zimmerman, R.(1986). Semantics and lexical error analysis. *Englisch-Amerikanische Studien* 2, 294-305.
- Zimmerman, R.(1987). Form-oriented and content-oriented lexical errors in L2 learners. *IRAL: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25:1, 55-67.

황순희(Hwang, Soonhee)

홍익대학교 교양과

30016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교양과, A동 403-1

전화번호: +82-44-860-2142

전자우편: soonheehwang@hongik.ac.kr

접수일자: 2017년 7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9월 7일

게재확정: 2017년 9월 18일